



Visualizing the invisible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

DDP 갤러리문

2023.1.27 - 202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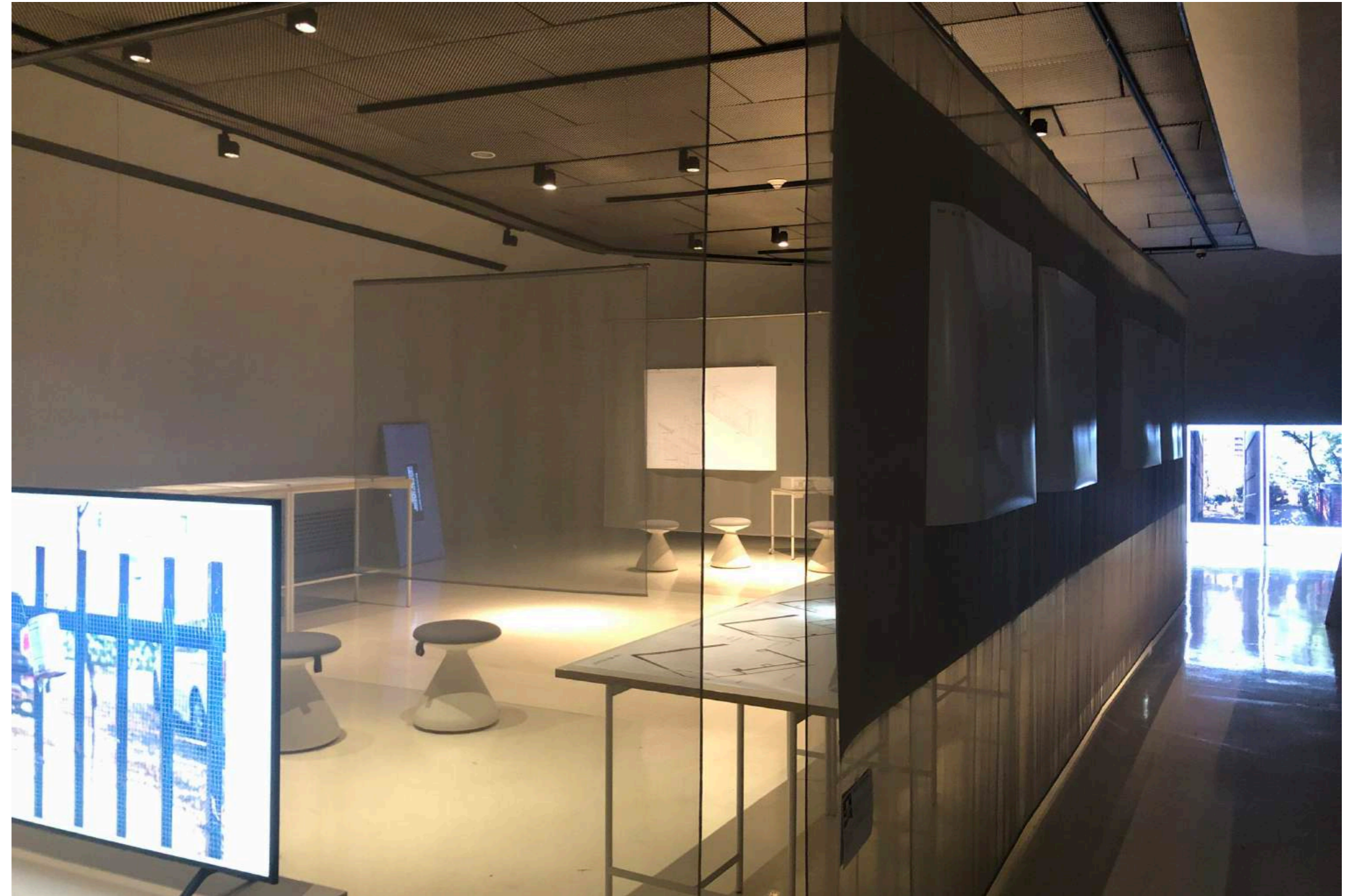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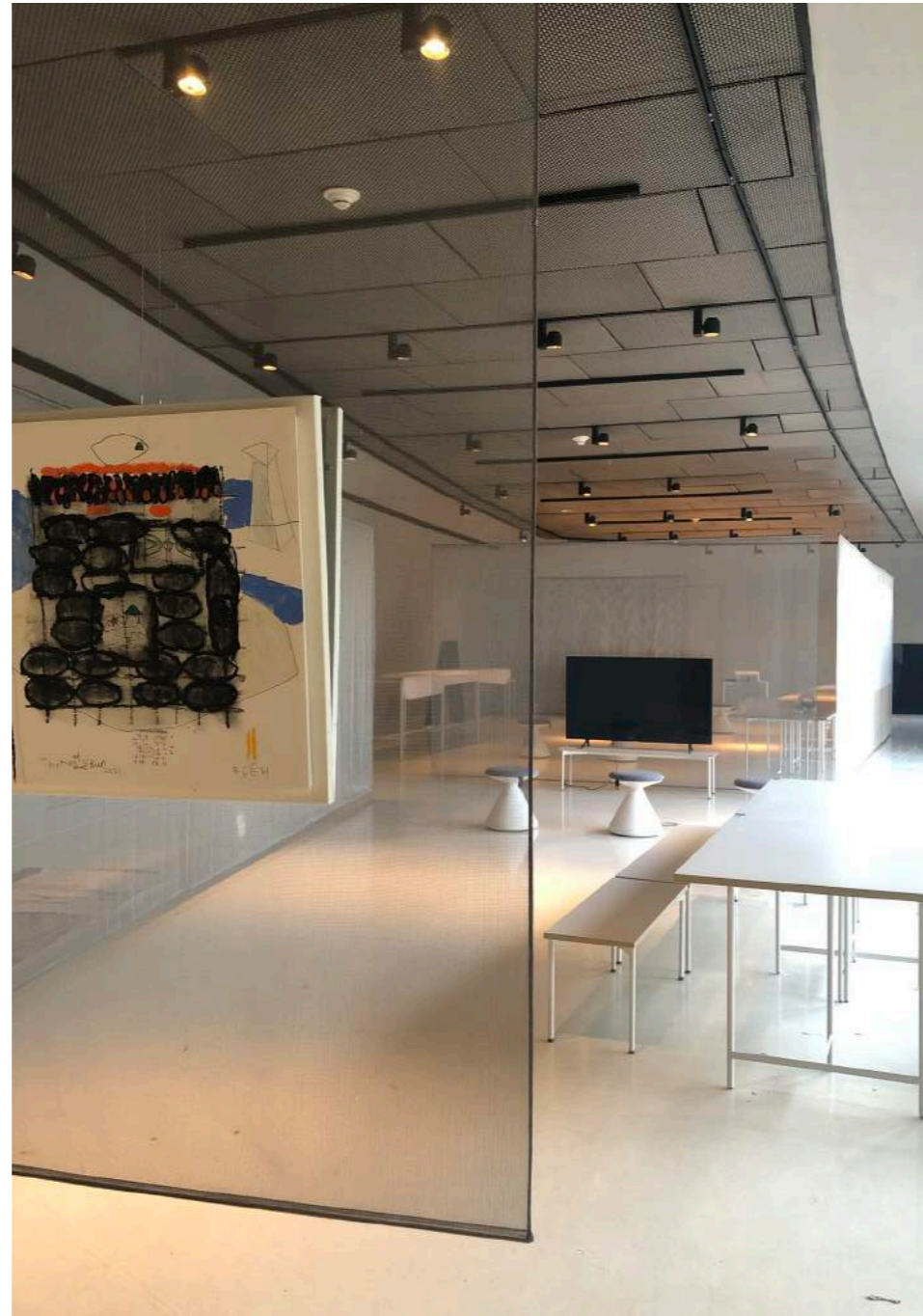
DDP 협력전시

Visualizing the invisible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

총괄기획 : 정윤천
전시기획 : 신은기
참여작가 : 강난형, 김지애, 김형진, 민병욱, 신은기, 이정우, 정다운, 정윤천
전시작품 제작 도움 : 박상민, 방정인, 서수빈, 신다원, 장혜민, 정연실, 황인서

전시디자인 : 김재욱, 조운영
그래픽디자인: 돌셋
웹플랫폼: 이용현
전시 진행도움: 김수빈, 박상민, 서수빈, 신다원, 장범섭, 장혜민, 정연실, 황인서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새건축사협의회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지원: 한국연구재단, 데스크, 크바드라트코리아, 프루젤코리아



이 전시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건축이 완성된 이후 시간과 사용자를 비롯한 다양한 에이전시의 개입에 의해 변화해온 모습을 통해 건축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을 발견하고 공유하는 기획이다. 본 전시에서 새롭게 제안하는 “일상화된 건축”이라는 개념은 순간순간 포착되어 삶과 관련된 흥미로운 장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축의 근원적인 모습과 함께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하며 의해 끊임없이 새롭게 재탄생되는 사회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을 의미한다.



본 전시의 대상인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여의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던 시기 초고층 미래도시주거로 계획되어 당시의 사회와 문화, 정치 이상 그리고 최신식 건축개념을 담았던 실험적인 프로젝트였다. 비록 1971년 완공된 이후 50년을 넘어서는 동안 계획 초기에 의도했던 주변 지역으로 시범적 공동주거 모델의 전파 및 확장 그리고 이를 통한 국제적인 주거환경의 조성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건축은 주변 여의도지역의 도시화 과정과 함께 새롭게 채워진 거주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절히 대응하였으며, 원형은 시기마다 조금씩 변화하며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여의도 시범아파트 건축의 주거 내외부 공간과 구조적 특징 그리고 풍부한 단지 내 녹지공간은 거주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다른 대한민국 공동주거 단지에서 발견할 수 없는 거주민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다.

본 전시에 참여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시선과 대상으로부터의 다양한 거리 그리고 장소의 경험을 통한 상상력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바라보고 담아낸다. 텍스트, 다이어그램, 드로잉, 페인팅,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 존재하되 그동안 간과되었던 거주환경들을 시각화하고, 일상의 모습과 도시의 평범한 풍경, 그리고 물리적 묘사를 넘어 축적된 장소와 시간에 관련된 건축 네러티브를 재구성하여 드러낸다. 이를 통해 기존구조에서부터 제거되고, 덧붙여지며, 때때로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일상화된 건축의 가치 및 새로운 건축생산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본 전시를 통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현재



© 정운천



© 송유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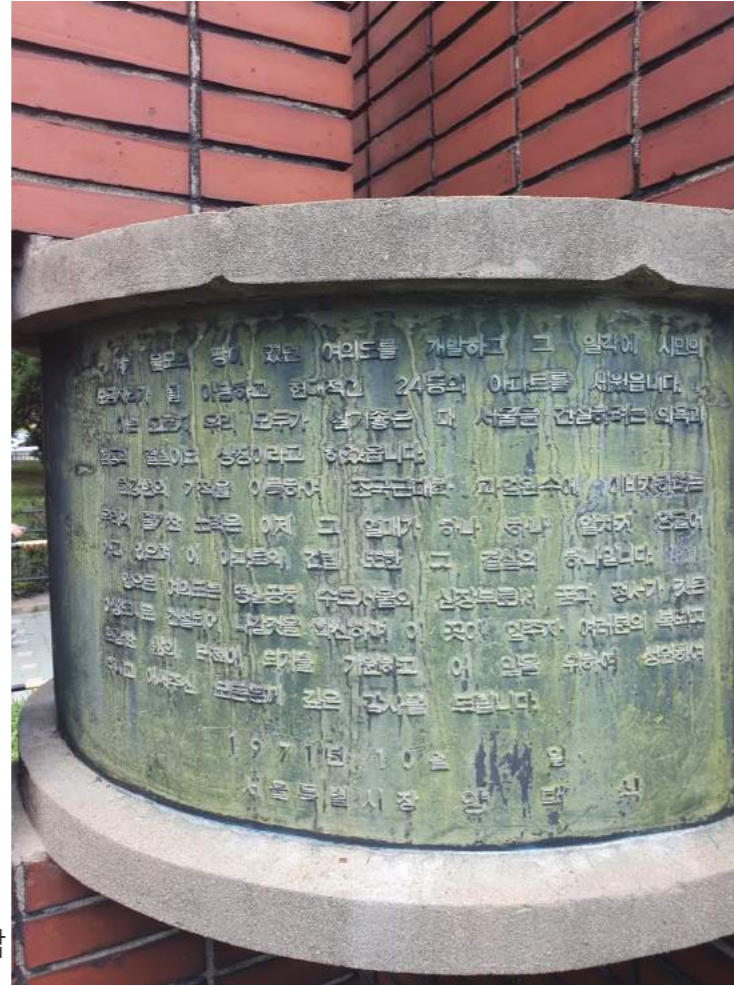
1971년, 이상주거로서 여의도시범아파트

여기 불모의 땅이었던 여의도를 개발하고 그 일각에 시민의 보금자리가 될 아담하고 현대적인 24동의 아파트를 세웠습니다. 이는 오로지 우리 모두가 살기좋은 대 서울을 건설하려는 의욕과 협동의 결실이요 상징이라고 하겠습니다.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하여 조국근대화 과업완수에 이바지하려는 우리의 즐기찬 노력은 이제 그 열매가 하나 하나 알차게 영글어 가고 있으며 이 아파트의 건립 또한 그 결실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여의도는 명실공히 수도 서울의 심장부로서 꿈과 정서가 깃든 이상도시로 건설되어 나갈 것을 확신하며 이 곳이 입주자 여러분의 복되고 보람찬 삶의 터전이 되기를 기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성원하여 주시고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71년 10월 일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구 기념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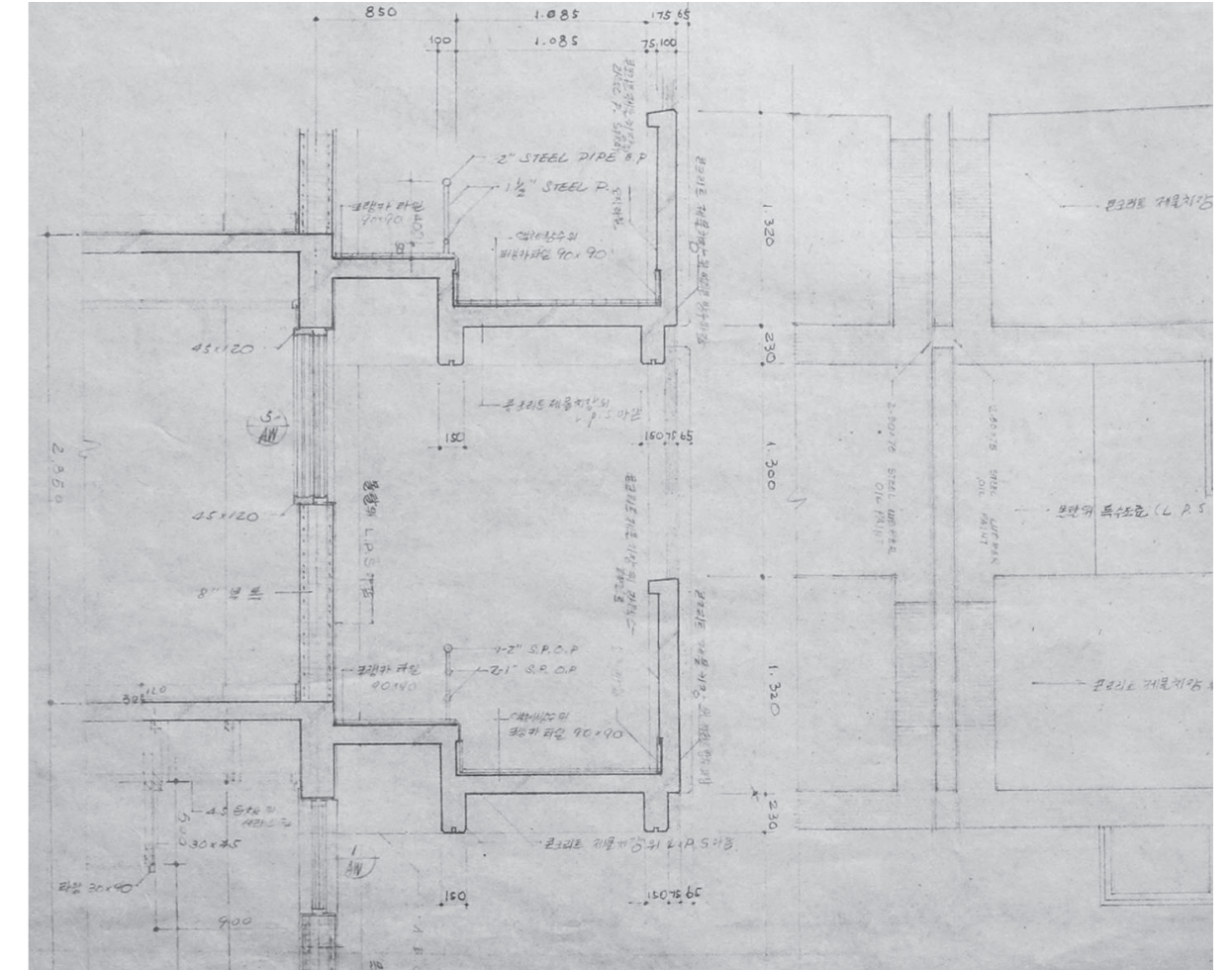


여의도시범아파트의 입면과 복도 단면

1. 복도쪽 입면
2. 모서리 디테일
3. 복도 경관
4. 여러 레벨을 보여주는 복도단면



© 정윤천



거주자에 의해 변화해가는 건축



© 신은기

복도 테라스가 실내로 변화해가는 과정_ 2020년 5월27일부터 2020년 7월11일까지

복도 입면과
개별 유닛의 변화 유형들



2022 대한건축학회 전시작 © 정윤전+신은기



2022 대한건축학회 전시작 © 정윤전+신은기



상상된 삶의 모습과 변화하는 건축

시간에 따른 거주자의 삶의 다양한 변화 모습이 주거 유니트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을 관찰하여, 완공 후 일시적 혹은 반영구적으로 덧붙여지면서 기능과 장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축의 상황을 기록하였다.

정윤천

정윤천은 현재 홍익대학교 건축학부에 재직 중이다. 한국,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규모의 건축설계 프로젝트를 경험하였으며 건축설계 스튜디오와 이론을 가르쳤다. 맥길대학교 건축역사 및 이론프로그램의 디렉터인 알베르토 페레즈 고메즈 박사의 지도로 건축에 있어서 언어와 분위기의 중요성을 공부하였다. 근대 및 현대 건축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건축이 언어, 이미지, 모델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및 일본 등에서 리서치 펠로우십을 받았으며, 그의 연구는 Reading Architecture: Literary Imagination and Architectural Experience (Routledge, 2018), Journal of Architecture 등에 소개되었다.

작업도움 : 정연실, 황인서, 서수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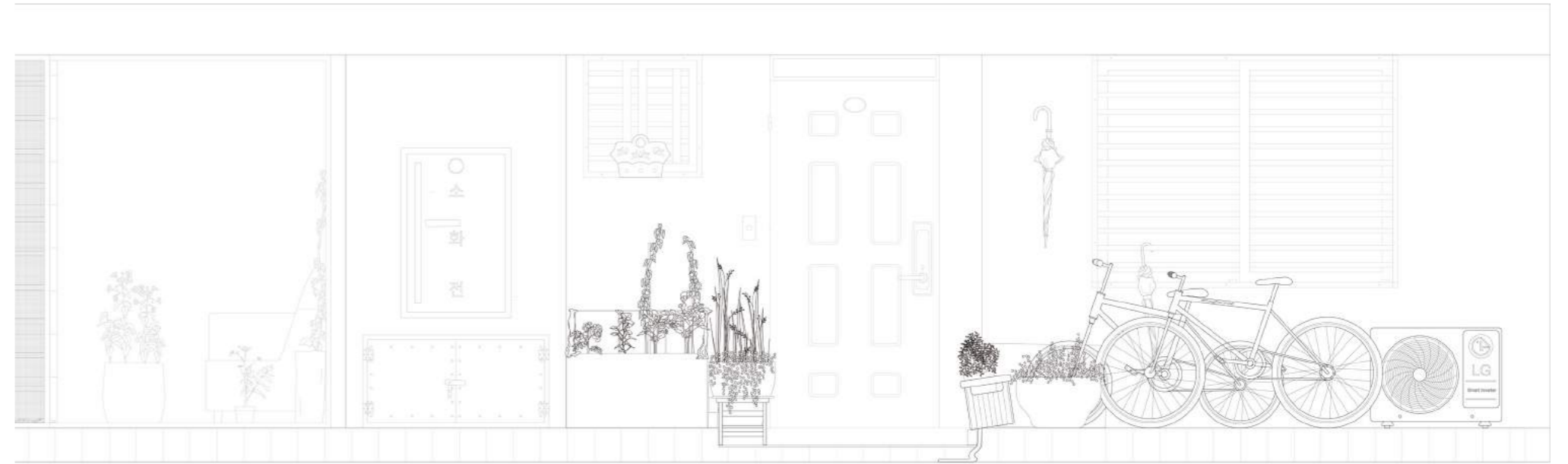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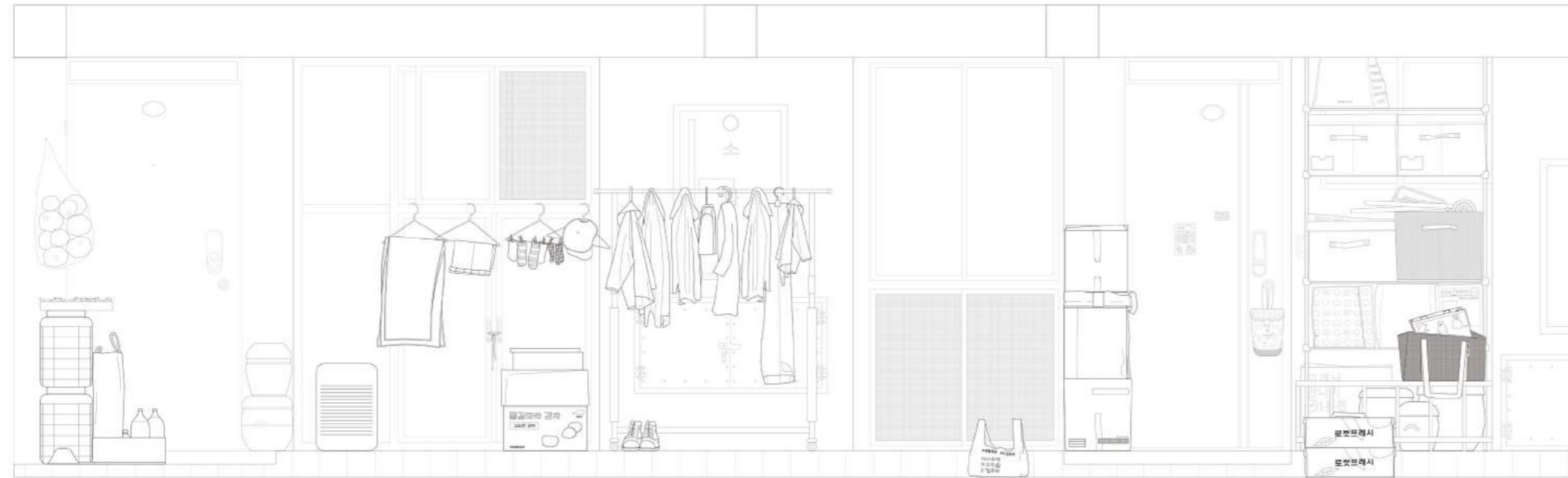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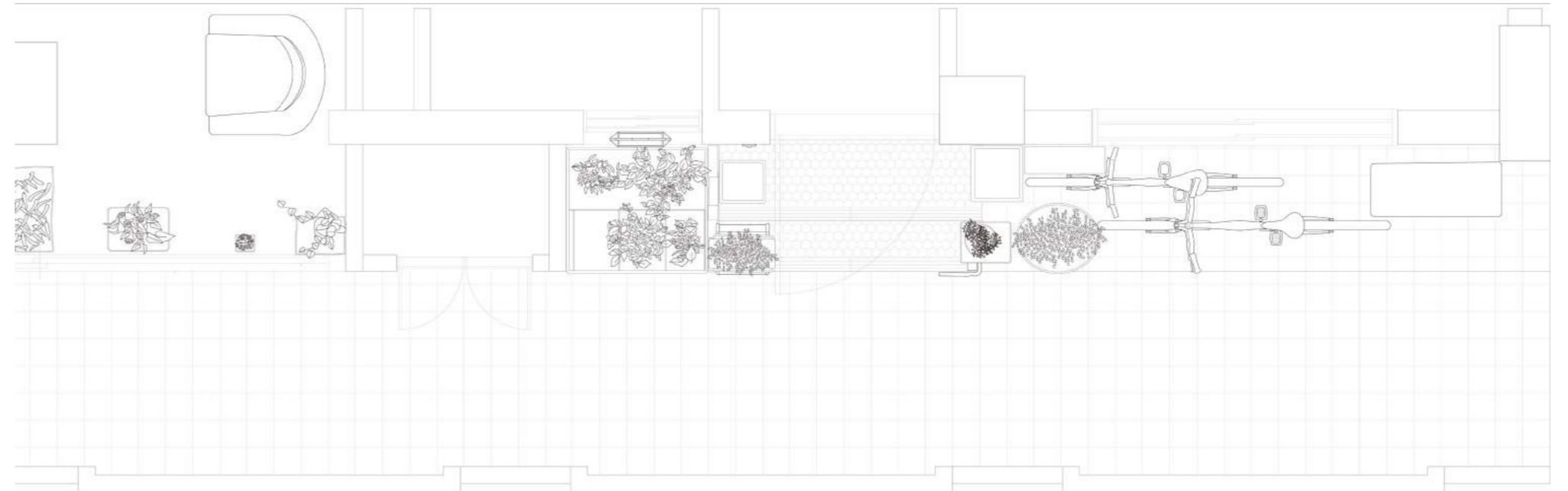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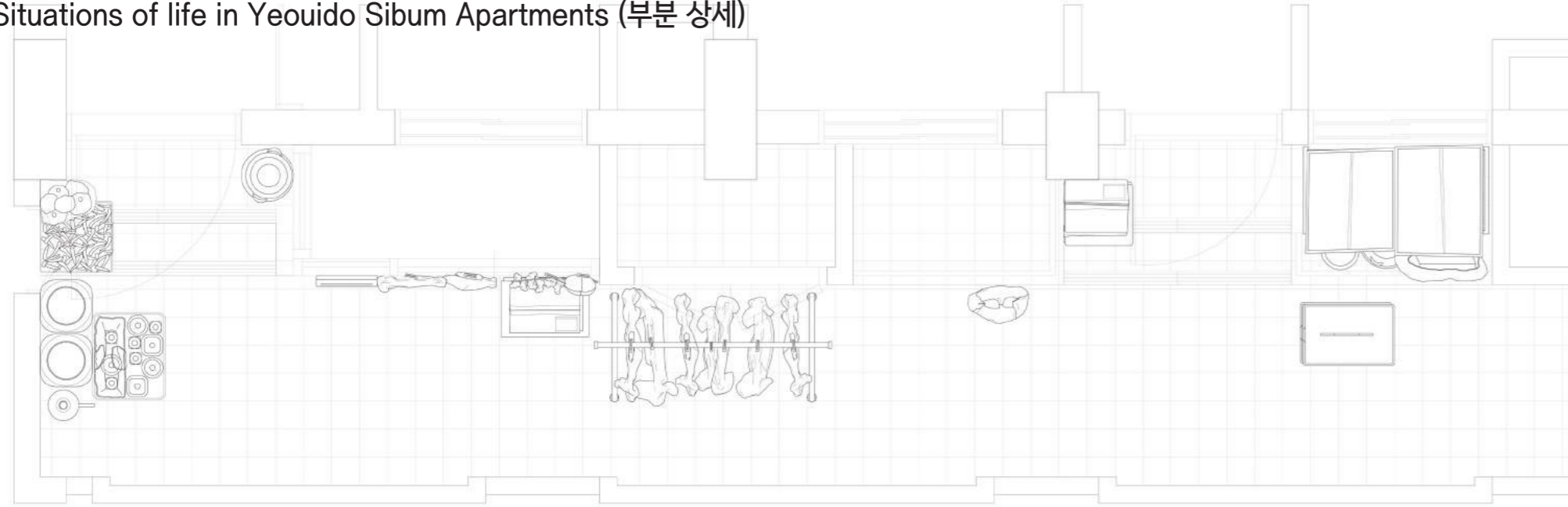
Situations of life in Yeouido Sibum Apartments (부분 상세)

아파트 복도 평면과 입면 라인드로잉, 8000*1500(mm)

복도 테라스를 점유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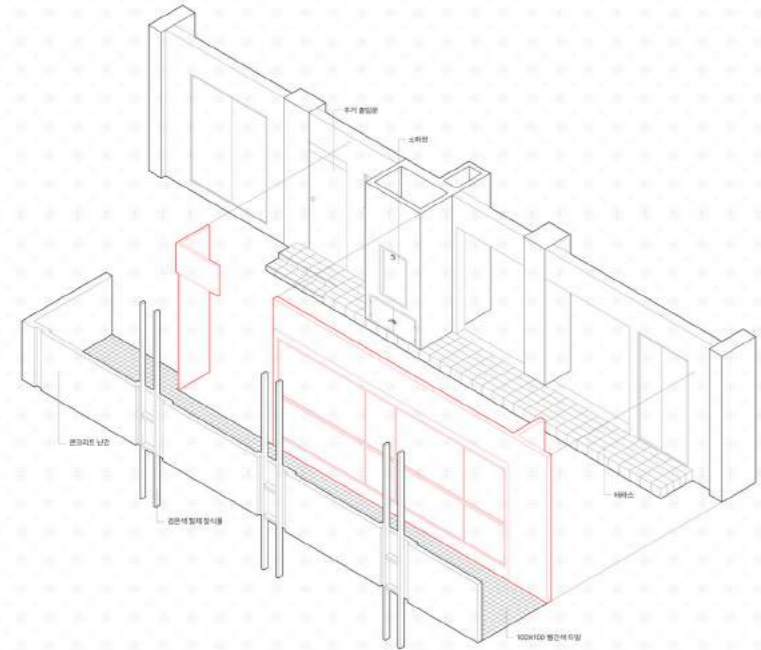
Situations of life in Yeouido Sibum Apartments (부분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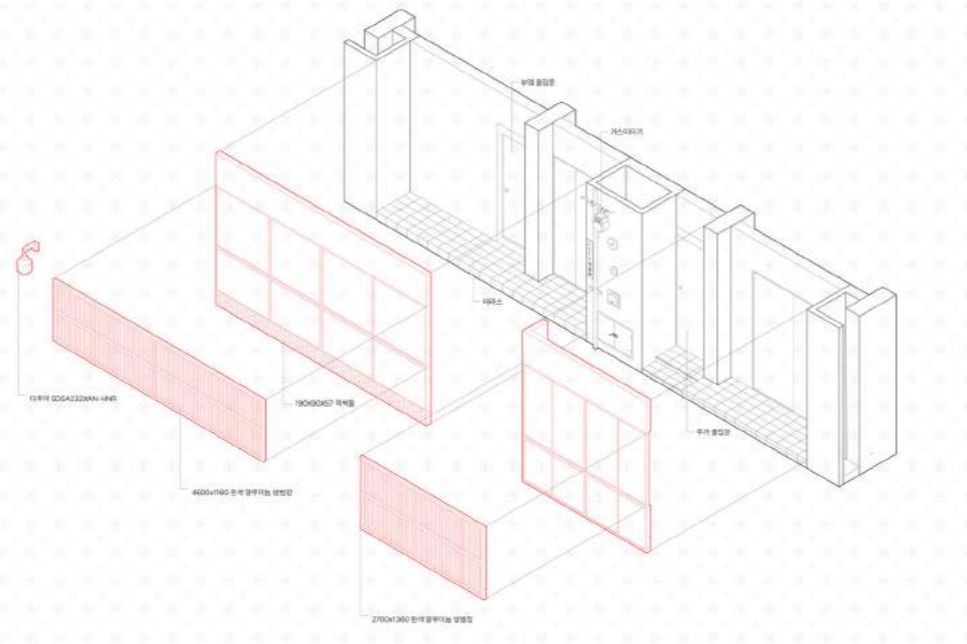
Axonometric Unit Drawings

아파트 복도 세대별 입면 액소노메트릭 라인드로잉, 1189*841(mm)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덧대어진 사물과 재료 구조물의 층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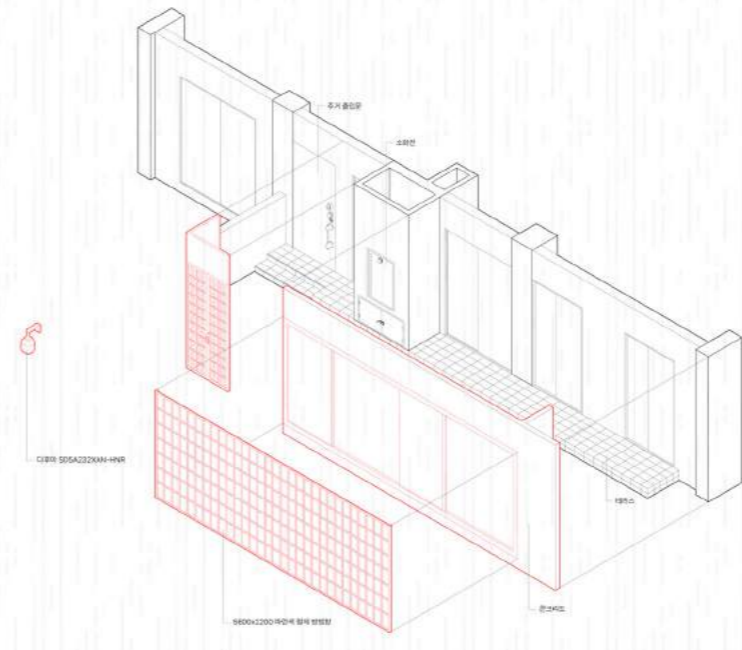
156m² | 12층 | 2020.03.18 기록 | 2022.12.21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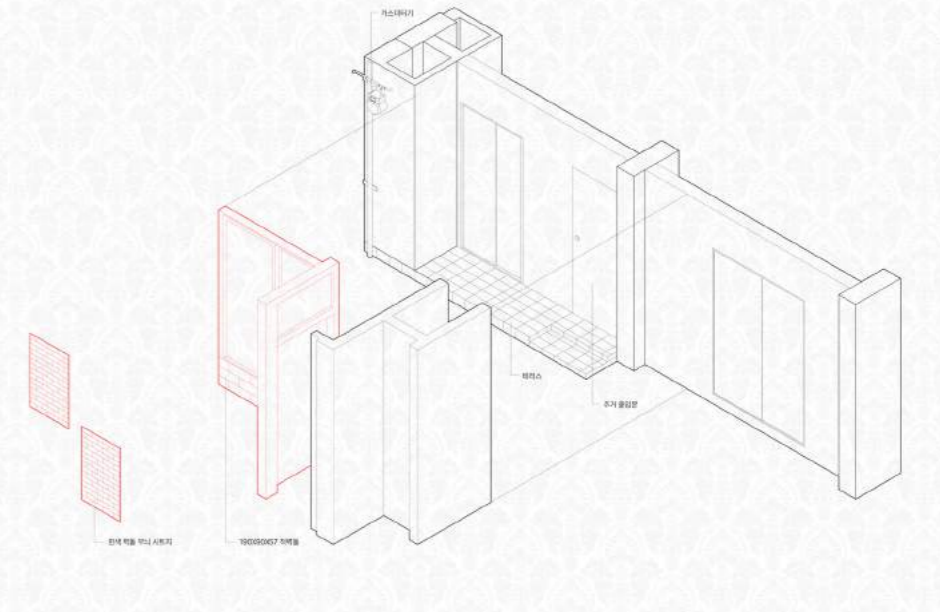
118m² | 7층 | 2020.03.18 기록 | 2022.12.27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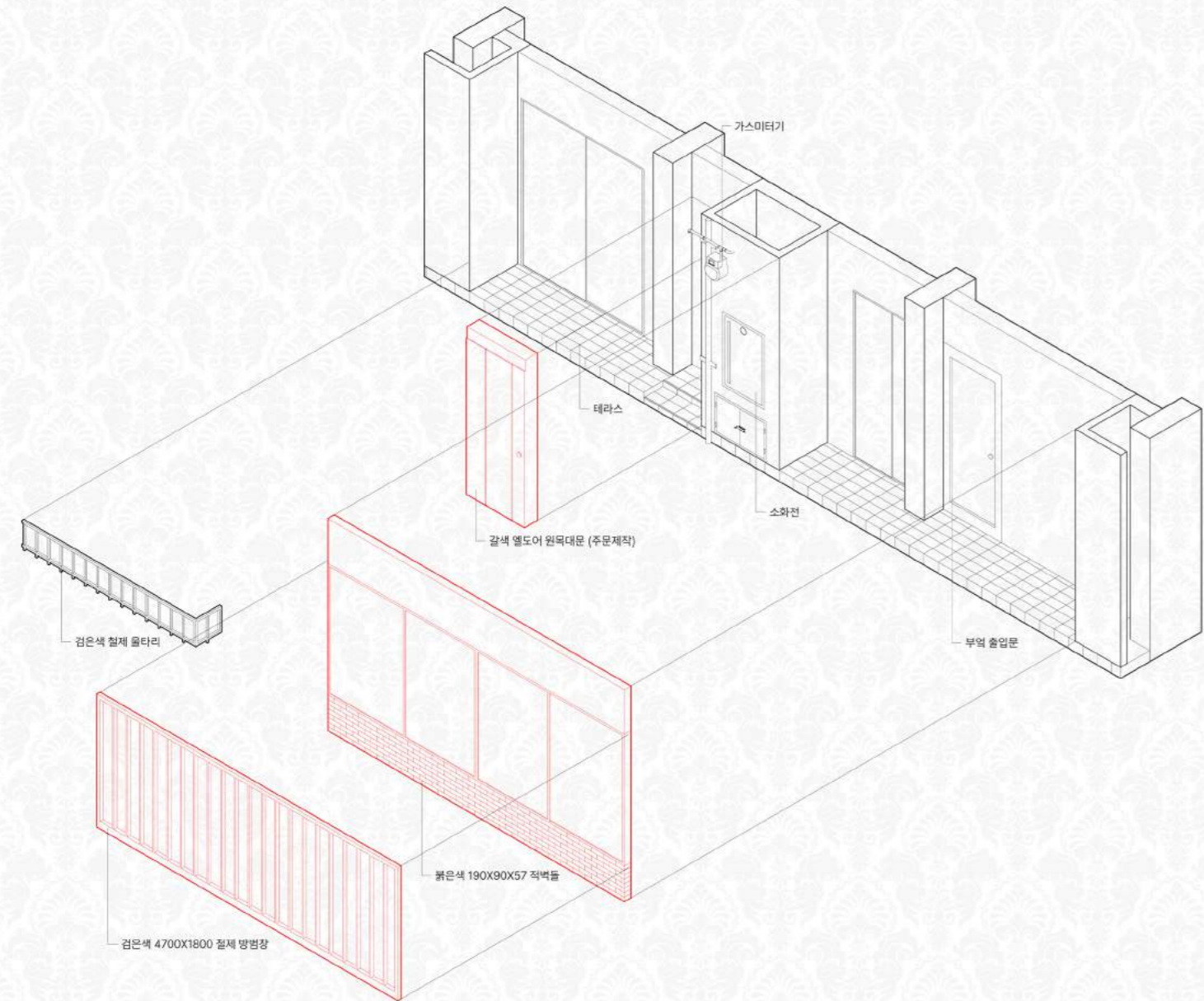
156m² | 12층 | 2022.07.26 기록 | 2022.10.19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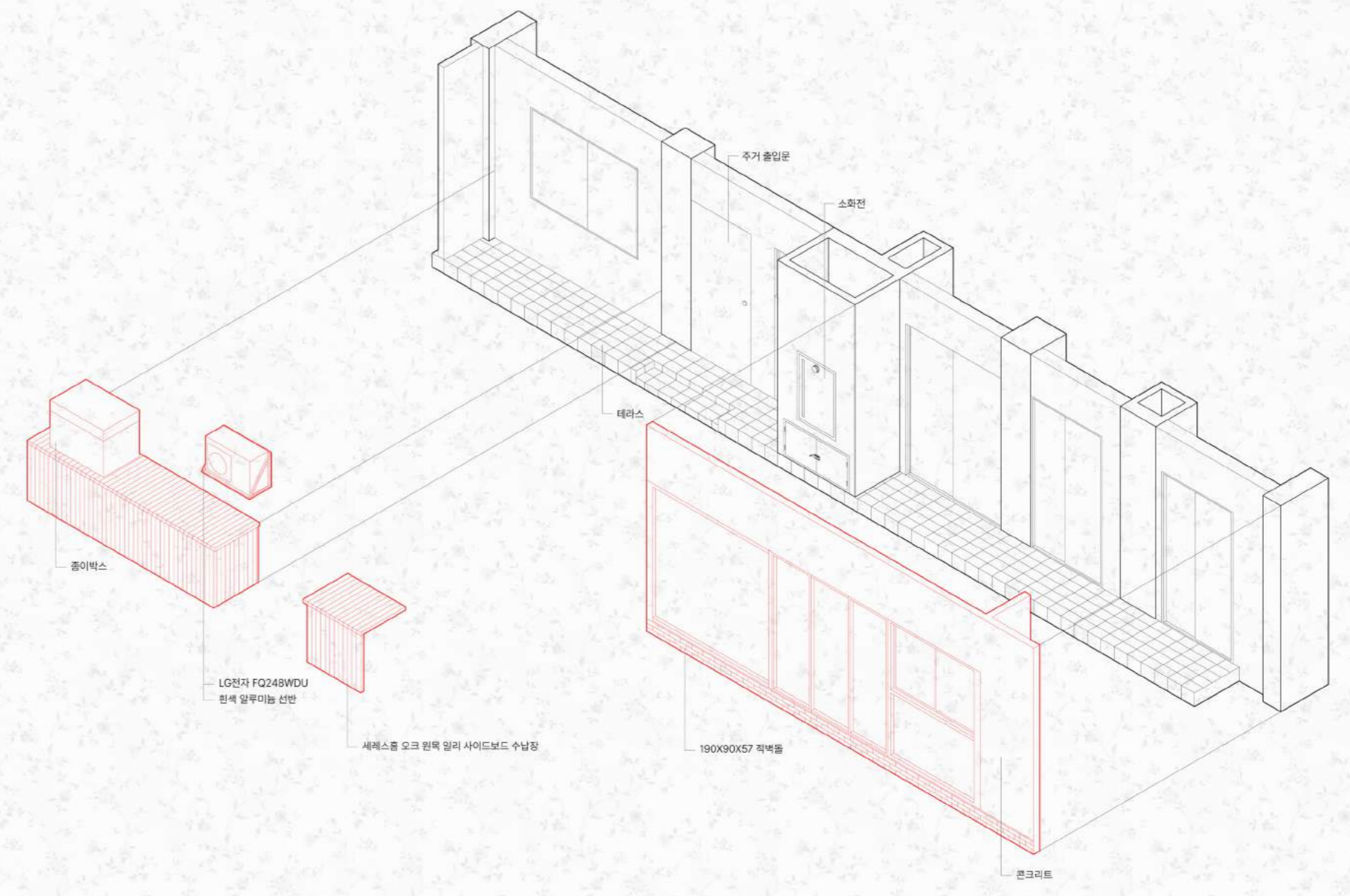
79m² | 4층 | 2020.03.18 기록 | 2022.8.18 제작



79m² | 10층 | 2020.03.18 기록 | 2022.12.27 제작



156m² | 8층 | 2020.03.18 기록 | 2022.12.30 제작



부엌, 모던리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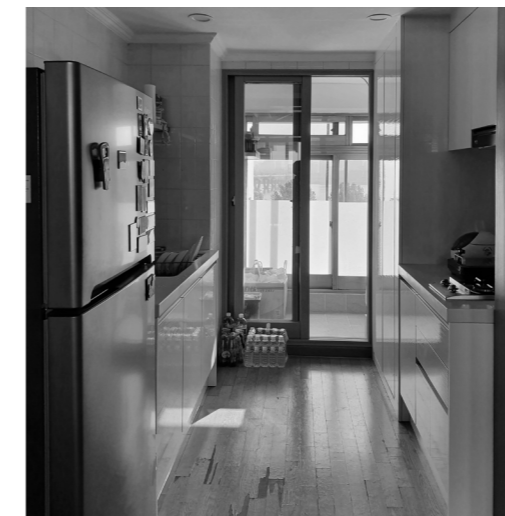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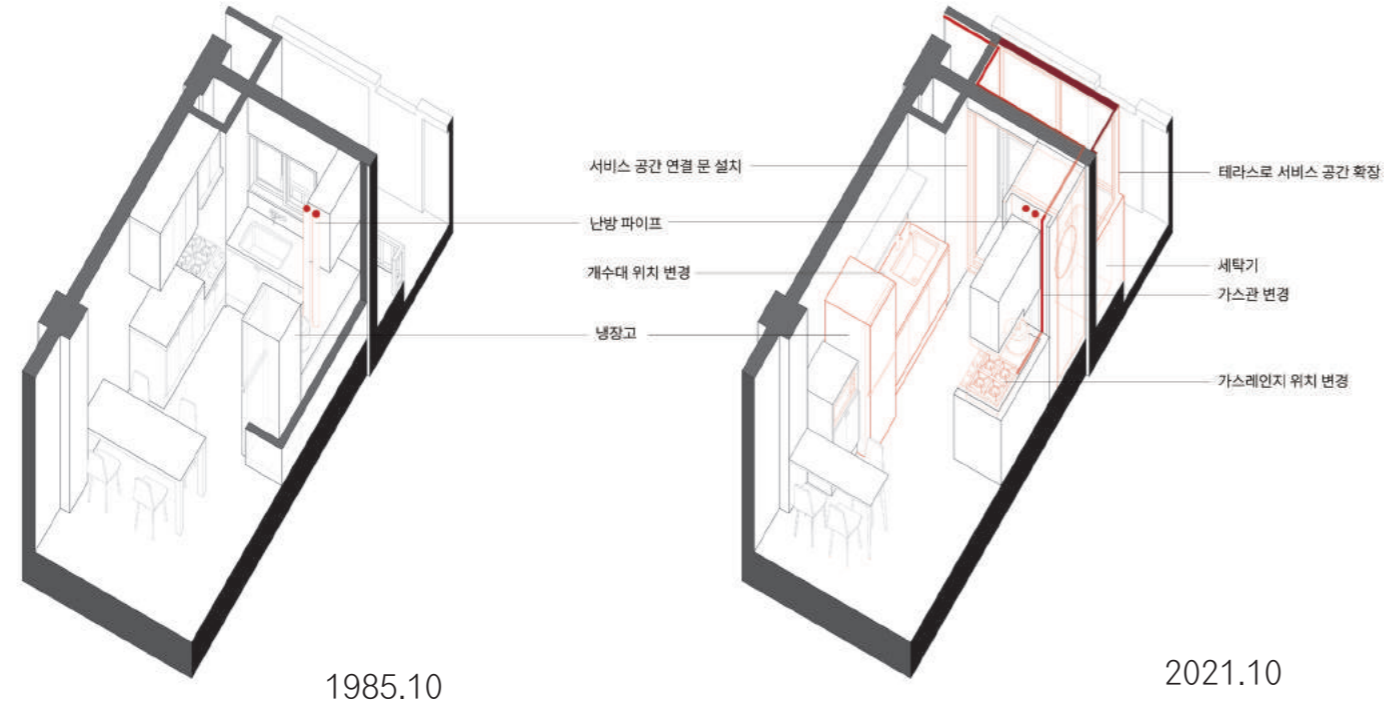
주거 근대화 과정에서, 부엌은 기술의 발전이 그리는 새로운 생활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었다. 기술과 삶의 모습 변화를 담기 위해 건축물이 적응해간 사례로서, 유닛의 부엌 공간이 변화한 모습을 기록하였다.

신은기

신은기는 현재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와 동대학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였다. 20세기 중반의 주거 건축을 중심으로 주거의 대량생산과 표준화, 그리고 이후 변형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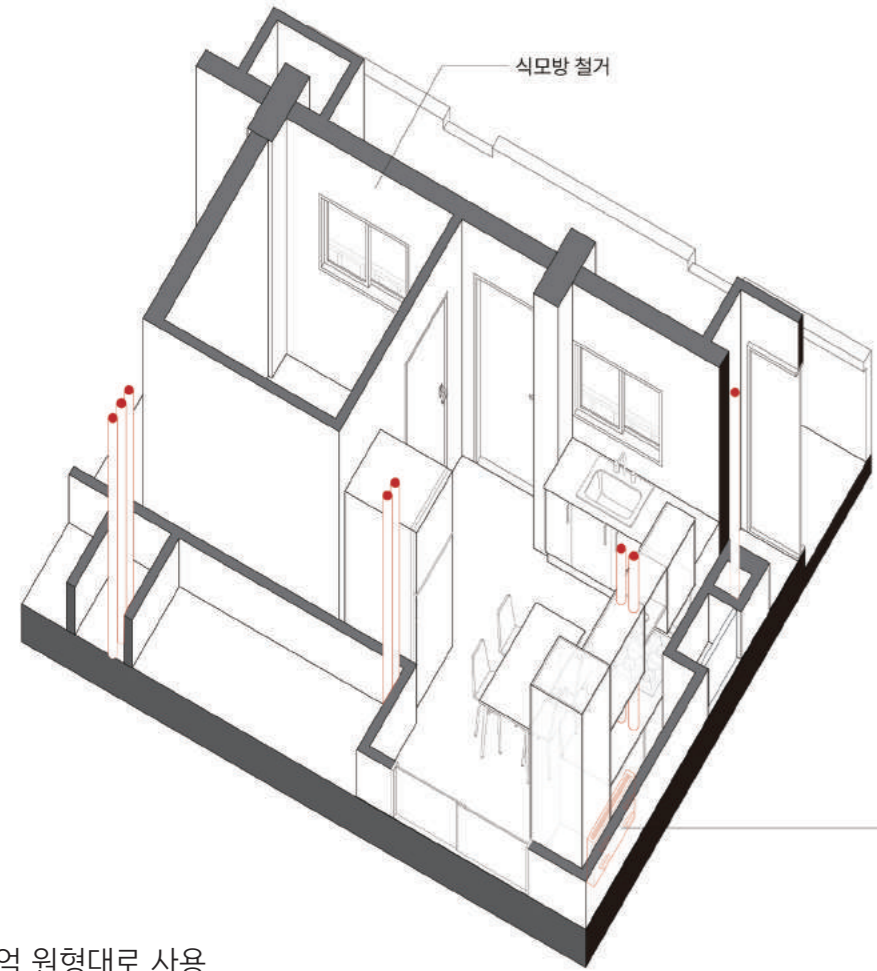
작업도움 : 신다원, 장혜민

UNIT 79㎡ 부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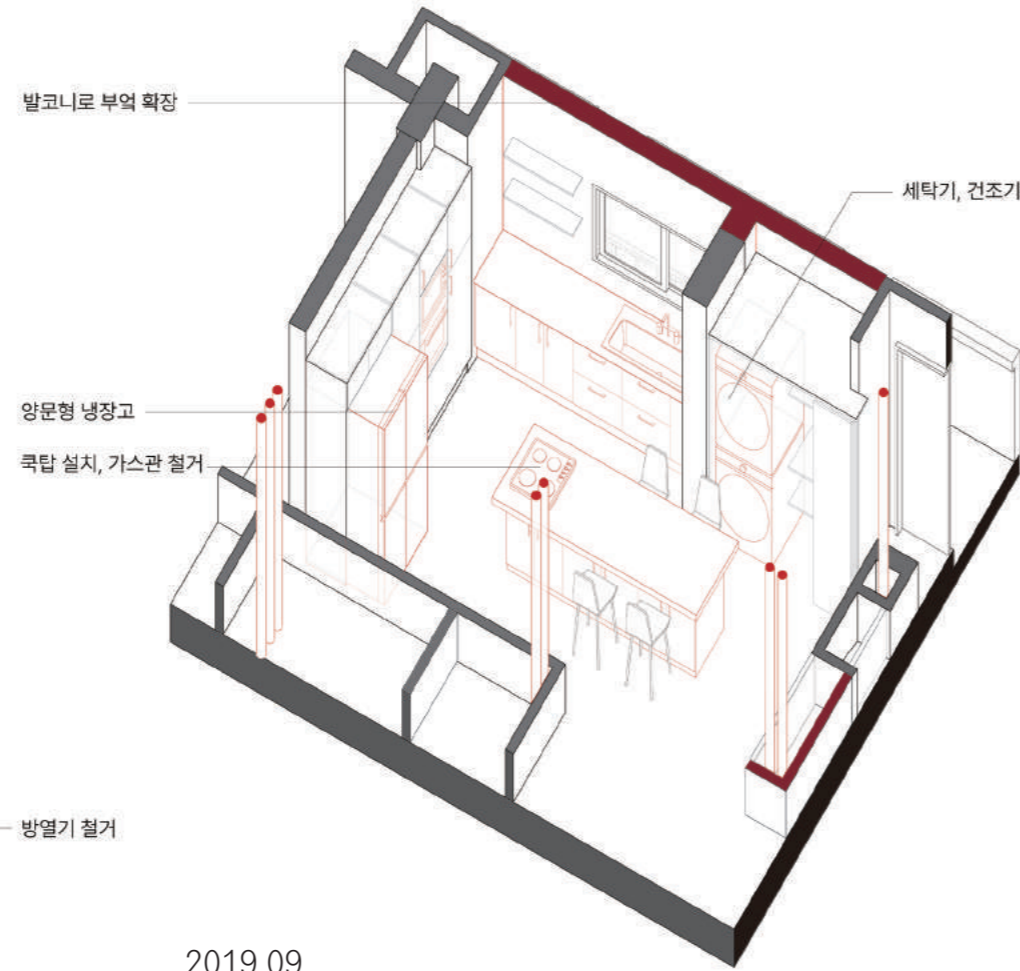


23동 6층 유닛의 1985년 10월의 상황과 2021년10월의 상황을 담은 평면드로잉

UNIT 118㎡ 부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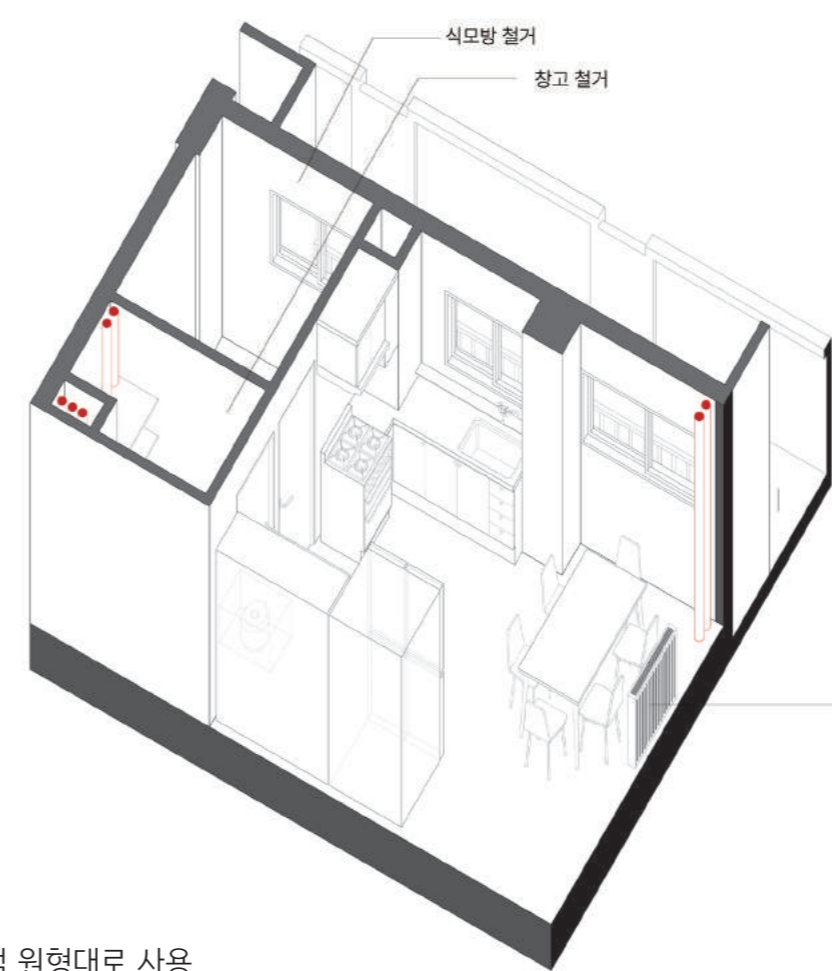


부엌 원형대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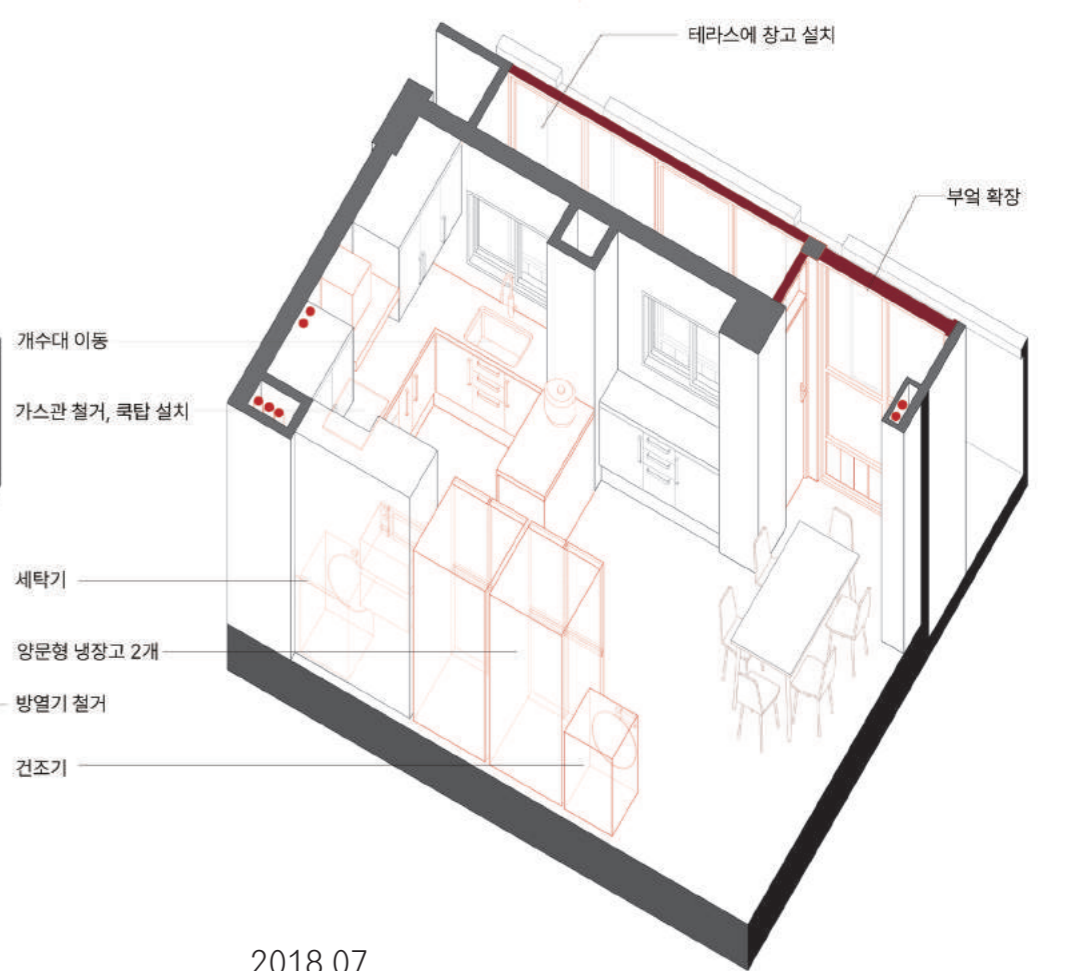


2019.09

UNIT 156㎡ 부엌의 변화



부엌 원형대로 사용



2018.07

여의도 시범아파트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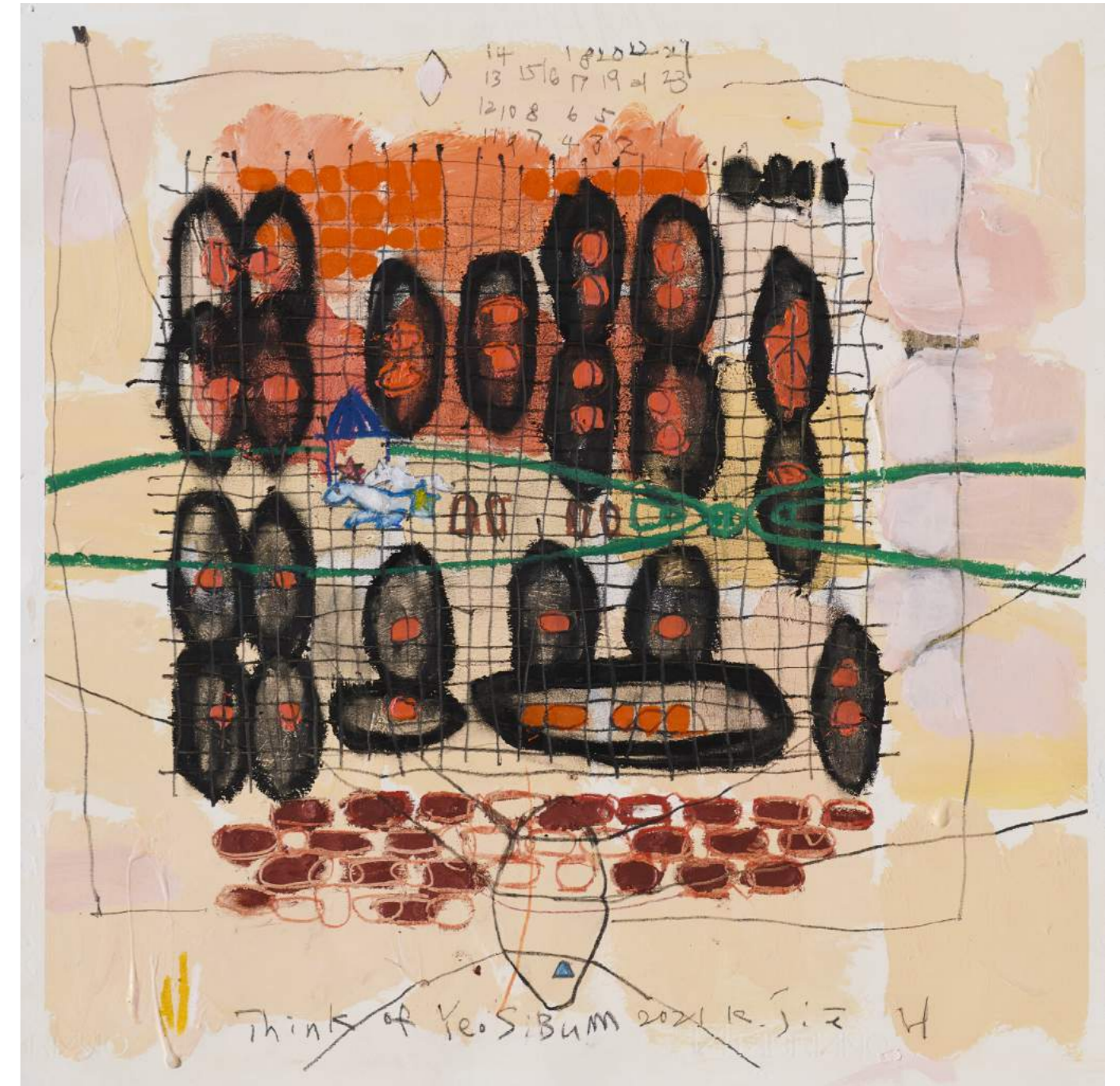
1971년 당시 초고층으로 지어진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2021~2022년에 찾아가, 머리와 눈과 마음에 담은 인상을 그린 화가의 시선이다. 24개 동을 포함하여 단지를 구성하고 있는 시설들을 파악하면서 접근했고, 세월과 함께 드러내는 거주민들의 삶의 흔적들이 만들어 낸 조형 요소들을 찾아내어 재배치한 평면 드로잉.

김지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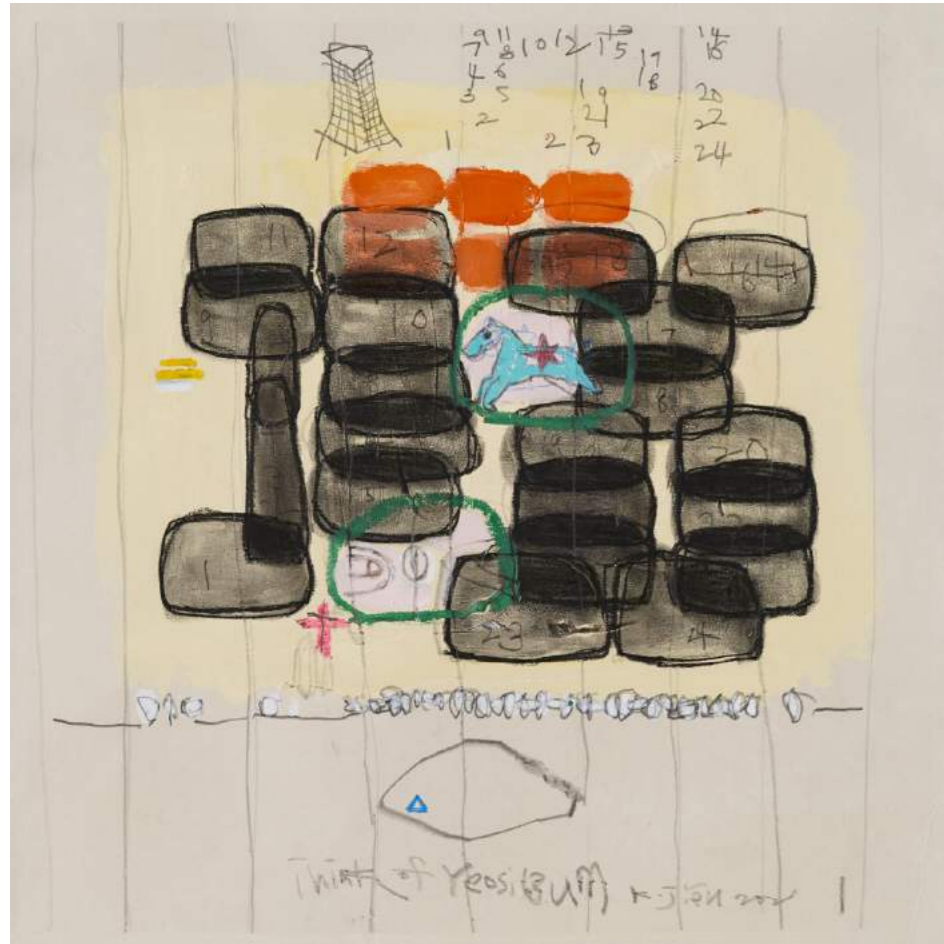
김지애는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조형언어로 풀어내는 그림그리는 사람이다. 그녀는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우리 그리고 사회와 인생을 이루는 생명들의 관계에 주목한다. 2000년 첫 개인전 이후, 14번의 개인전시회를 하였고, 현재 홍익대학교 문화예술 평생교육원에서 작가의 여정을 가고자 하는 성인들을 도우며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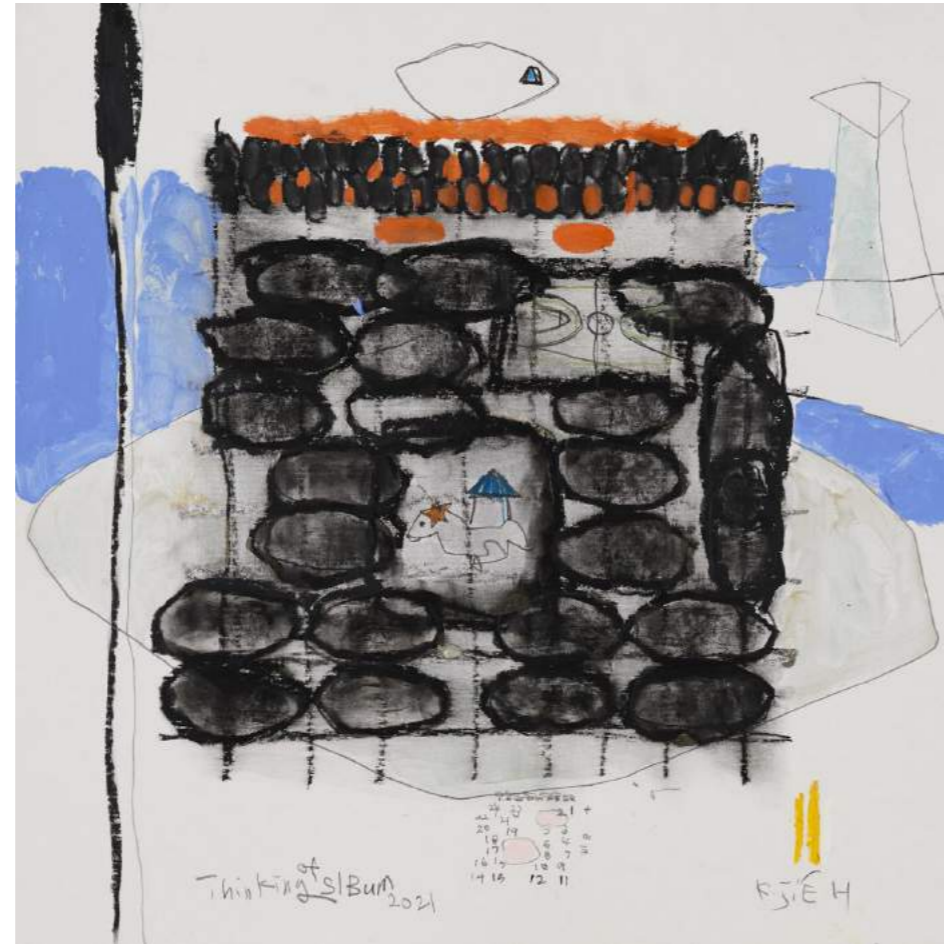
Reading Yeouido Sibum Apartment,
50×50cm, 아크릴릭 온 페이퍼



Reading Yeouido Sibum Apartment,
50×50cm, 아크릴릭 온 페이퍼



Reading Yeouido Sibum Apartment,
50×50cm, 아크릴릭 온 페이퍼



Oneday in November,
150× 105cm, 아크릴릭 온 페이퍼





Oneday in November,
150 × 105cm, 아크릴릭 온 페이퍼



Oneday in November,
150 × 105cm, 아크릴릭 온 페이퍼



관조, 2021~2022년 여의도 시범아파트 풍경

미래의 과거가 될 현재, 건물이 아닌 환경.
시골 풍경으로 대변되는 부모 세대 고향의 이미지가 아닌
도시에서 자란 우리 세대의 고향으로 기억될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오늘을 사진으로 남긴다.

이정우

이정우는 홍익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사진학교를 나온 후 부터는 대부분의 작업을 사진으로 하고 있다. 개인작업 외에도 건축, 인테리어, 뷰티 등의 상업사진 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논현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중이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사진기록을 맡아 진행중이며 LVMH 그룹의 한국밴더로도 활동중이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행사의 일환으로 지금은 사라진 청계천 주변 '세운3지구'의 사진과 영상을 기록으로 남기고 전시하기도 했다.





아파트 카탈로깅 apartment cataloging vol.1 여의도 아파트 복도와 샷시

아키텍토닉스는 도시를 이루는 다섯가지 요소로서 토지·사람·건물·사물·길을 통해 도시+건축을 관찰한다. 도시의 현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 그 과정을 읽어내기 위해 도시에 흩어져있는 단서를 찾는다. 기존 기록물들은 이미 어떤 컬렉션 안에 속해 있다. 기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체가 아닌 일부를 선택한다. 하지만, 그 기록이 어떠한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출처와 매체 종류 및 특성을 표기한다. 이 때, 기록과 관련된 작성자, 시간, 위치도 포함되도록 한다. 기록물의 검색·선택·공유를 위해 키워드를 표시하며, 키워드는 토지·건물·사물·길과 관련된 단어 위주로 한다. 필요한 경우 기록의 연관 정보인 공간·장소·인물·사건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아파트 카탈로깅"은 책과 책으로 묶여진 기록들의 카탈로깅 방식을 액자로 전시했다. 이번 전시는 다섯 가지 요소 중 사물과 길을 중심으로 여의도의 복도 아파트와 아파트 복도, 그리고 복도 샷시를 살펴보았다.

물질-문화-만물의 도시건축연구소 아키텍토닉스 활동으로 2021년부터 여의도 시범 아파트와 그 이후 이어진 여의도 복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아파트의 유형과 텍토닉스'와 '아파트 복도의 변화'를 주제로 한 웹 플랫폼 전시(<https://plottingarchitecture.org/>)를 공개했다. 2022년에는 서울도서관과 서울기록원 간의 여의도 복도 아파트의 기록물을 살펴보면, 서울기록원 카탈로그북 컬럼 원고 "여의도 복도아파트 기록의 연결"를 썼다. 이것이 첫번째 카탈로깅의 여정이다. 한국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유형이 기형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된 과정은 도시적 스케일에서 사물단위의 스케일까지 인프라, 건축물, 건축자재, 가구, 물건의 풍경이 새로이 구축되는 역사이다. 우리는 아파트의 유형과 텍토닉스의 구축할 수 있는 조건으로부터 변화된 공간사용을 구축 행동으로 유형화해 보았다. 버내쿨러 노동의 흔적은 역동적인 만큼 소멸되기 쉽다. 그럼에도 집을 짓고 만들고 지키며 돌보는 관계와 가능성들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자 했다.

강남형+ 정다운

강남형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이자 건축역사학자이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아키텍토닉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자 인천대학교 강사로 건축 역사와 설계를 강의하며, 아시아 발전국가의 도시 개발과 유산 보존, 수공예 콘크리트 기술사를 연구 중이다.

정다운은 서울시건축센터에서 서울시의 도시와 건축에 관한 자료, 시민들의 도시공간 기록들을 수집 정리하고 있다. 도시와 건축을 함께 들여다보는 SNS 플랫폼< #너머도시>를 기획하였으며, 2016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용적률게임》에 보조큐레이터로 참여했다. 현재 아키텍토닉스와 연구를 함께 하고 있다.

그래픽디자인: 방정인
전시도움 : 박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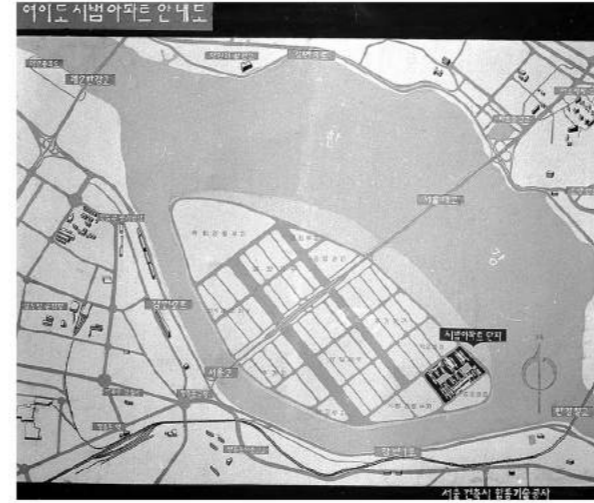


Fig 4-1.



Fig 4-2.

Fig 4-1. 여의도 시범아파트 배치도 ©서울시 영상부

소장처	서울도서관
매체명	서울건축사 협동기술공사 - 여의도 시범아파트 배치도
시간	1970년 추정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유형	도면
작성자	서울건축사 협동기술공사
제목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내도
설명	합동기술공사가 작성한 여의도 시범아파트 배치도이다.
키워드	#여의도시범아파트 #배치도

Fig 4-2. 여의도아파트단지사업계획서(1973-1978)의 여의도아파트단지 조감도 ©서울도서관

소장처	서울도서관
매체명	서울시 - 여의도아파트단지사업계획서(1973-1978)
시간	1972년 추정
위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
유형	도면
작성자	서울특별시 아파트 건설사업소 관리과
제목	여의도아파트단지 조감도
설명	합동기술개발공사 대표 홍사현이 작성한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업계획서이다.
키워드	#여의도아파트 #조감도 #사업계획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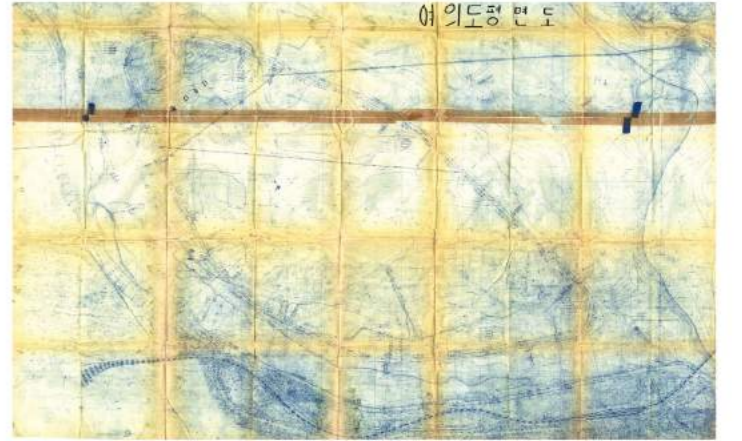


Fig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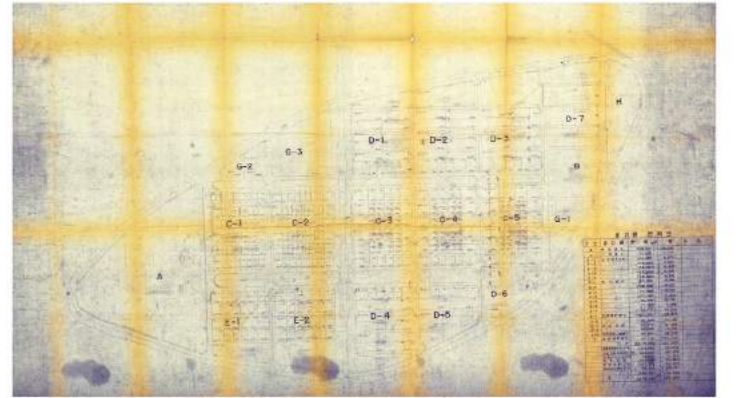


Fig 6.

Fig 5. 국회 의사당 건립대지 매립지도 ©서울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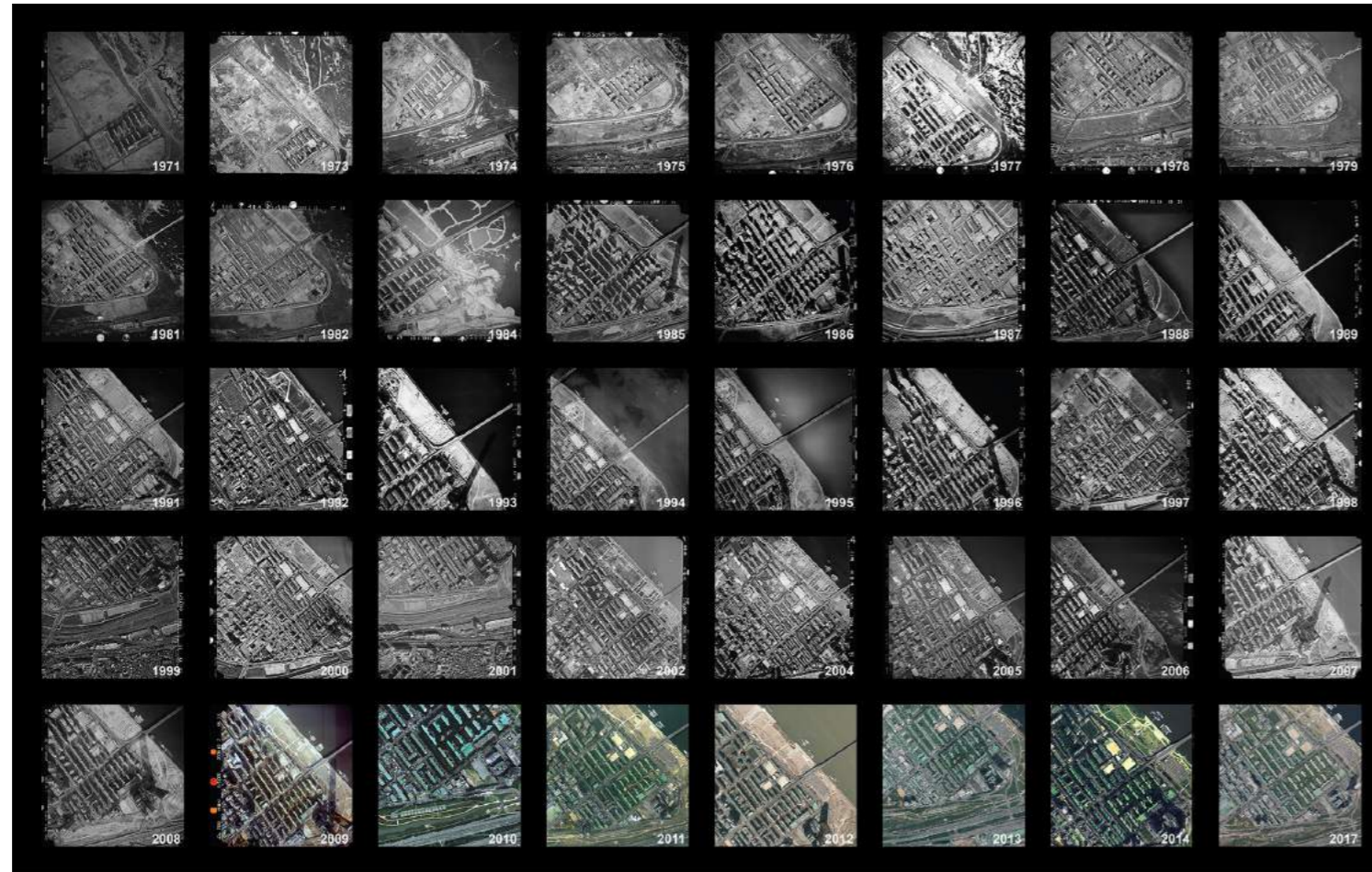
소장처	서울기록원
작성자	서울특별시 계획조사과
위치	여의도중앙개발계획(2)
제목	국회의사당 건립대지 매립
시간	1969년 9월 16일자
유형	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계획조사과에서 여의도 택지 계획을 표현한 지도이다. 동서 중심은 C-1~C-5의 업무상업용 남북축에 D-1~D-7 주거지구를 계획했다. D-7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링크	https://archives.seoul.go.kr/item/1186912
키워드	#여의도 #매립 #국회의사당

Fig 6. 여의도 택지계획안 지도 ©서울기록원

소장처	서울기록원
작성자	서울특별시 계획조사과
위치	여의도중앙개발계획(3)
제목	여의도 택지계획안 승부
시간	1970년 6월 2일자
유형	문서
설명	서울특별시 계획조사과에서 여의도 택지 계획을 표현한 지도이다. 동서 중심은 C-1~C-5의 업무상업용 남북축에 D-1~D-7 주거지구를 계획했다. D-7이 여의도 시범아파트 단지에 해당한다.
링크	https://archives.seoul.go.kr/item/1413023
키워드	#여의도 #택지계획 #주거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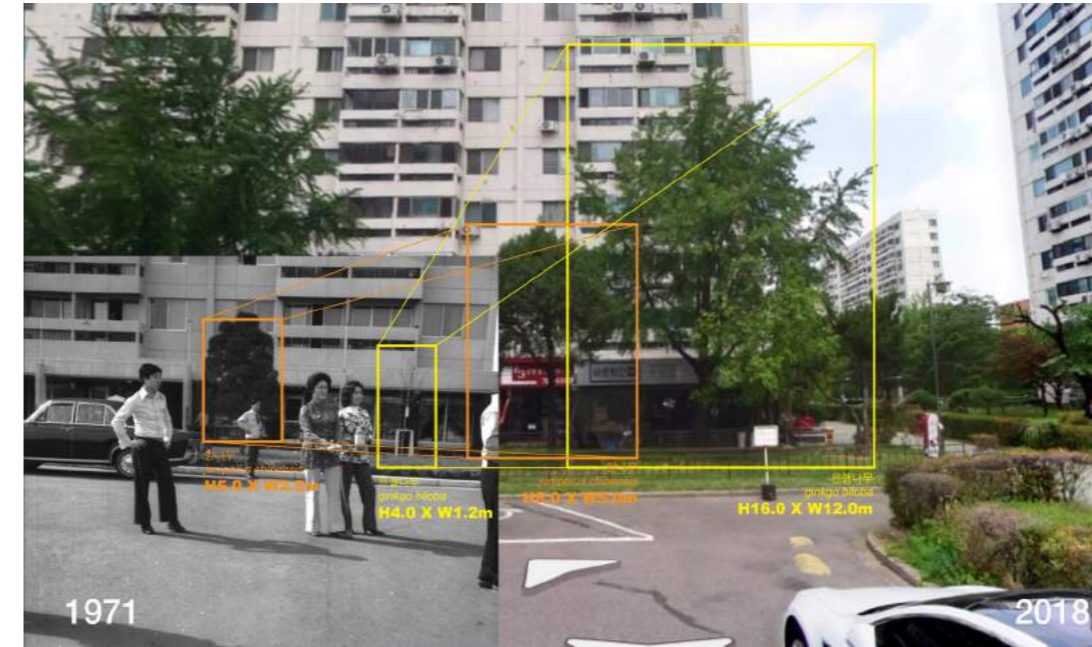
50년, 외부공간의 변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50 년의 시간 동안 항공사진을 통해 보행자와 자동차, 식물들이 점유하는 공간들이 변화한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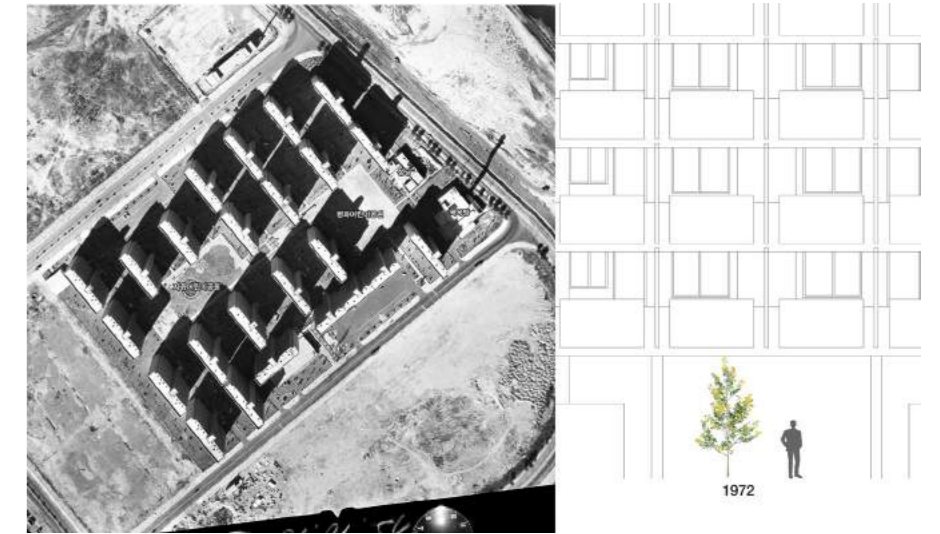


민병욱

민병욱은 생태적인 태도로 땅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미국 아리조나주립대에서 환경설계 및 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오이코스과 동심원조경 등에서 실무를 익혔다. 현재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에 재직 중이다.



50년간 나무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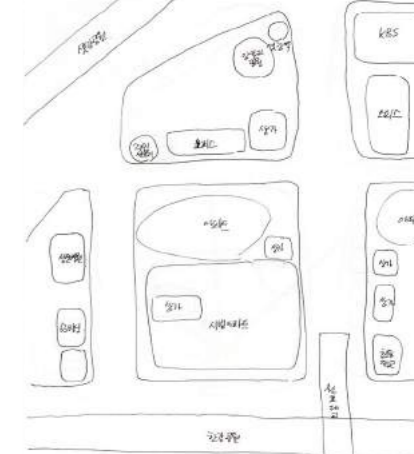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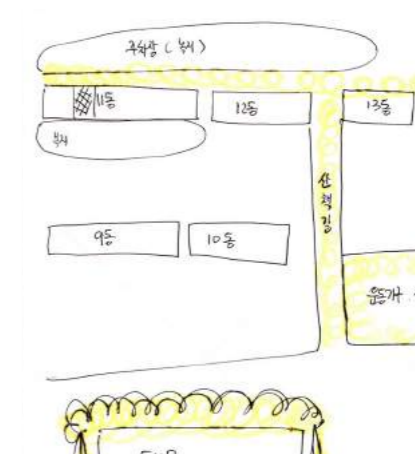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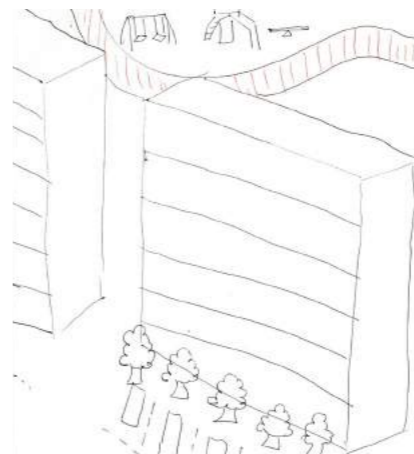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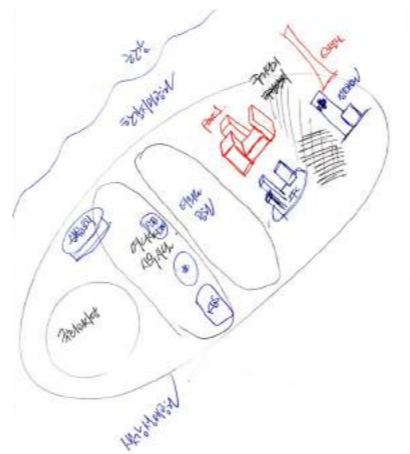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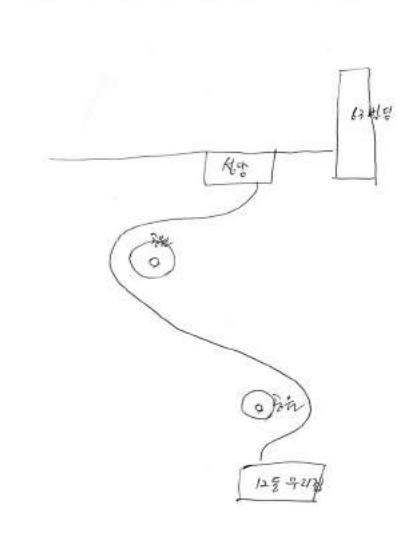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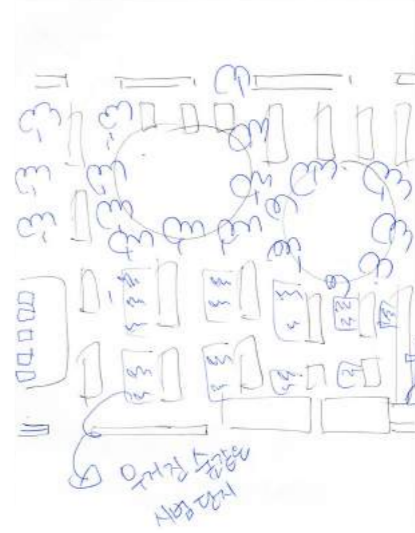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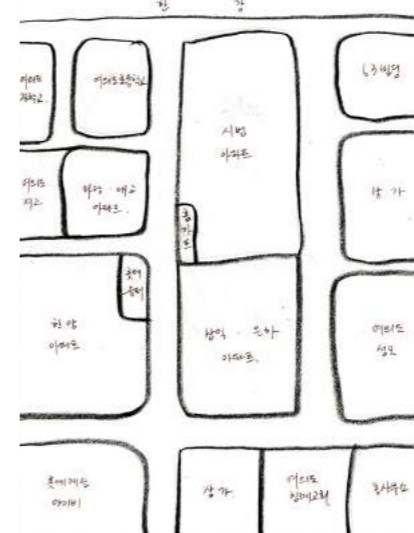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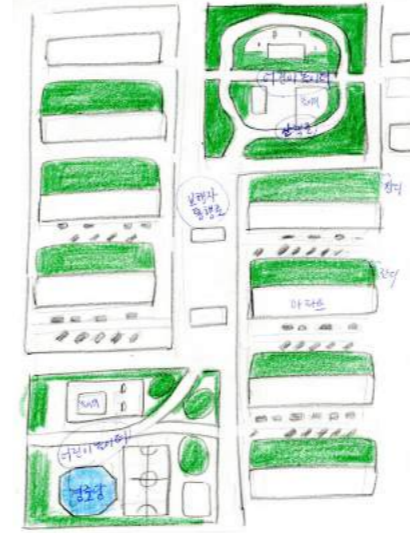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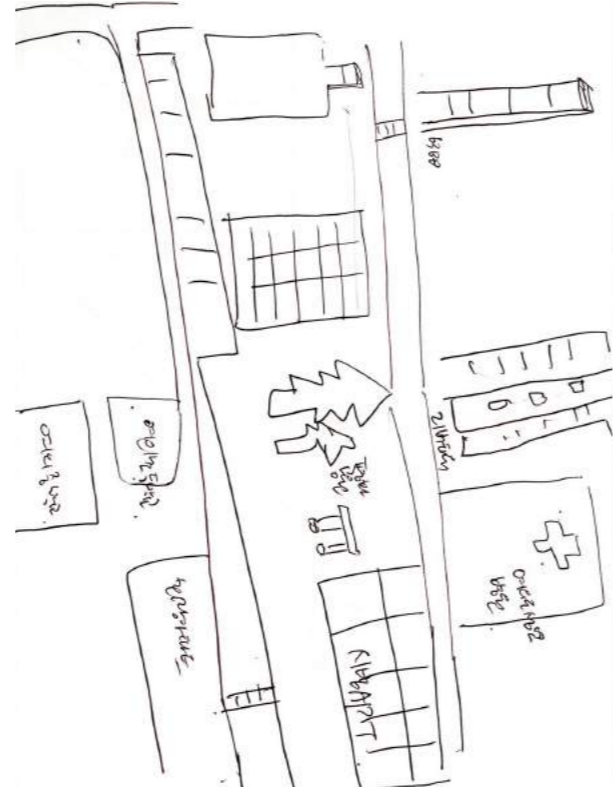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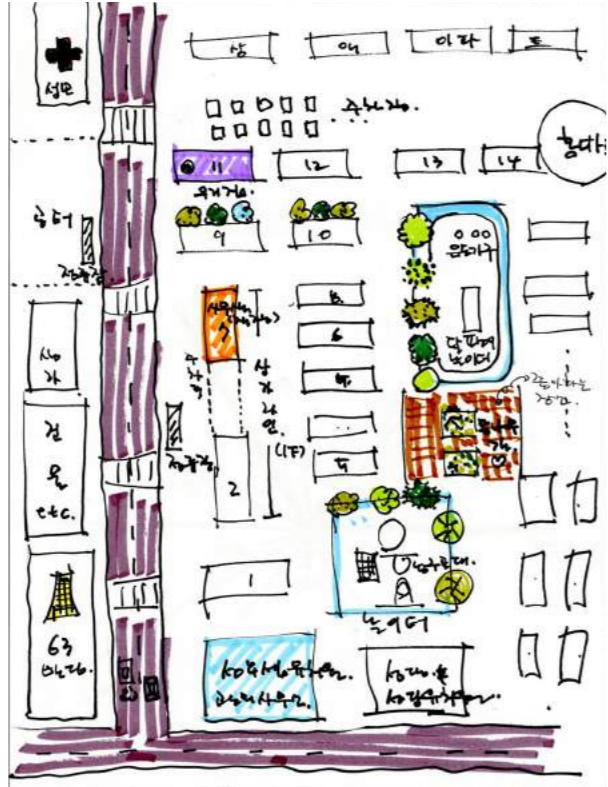
1972년과 2022년 아파트 단지의 녹지

주민들의 공간기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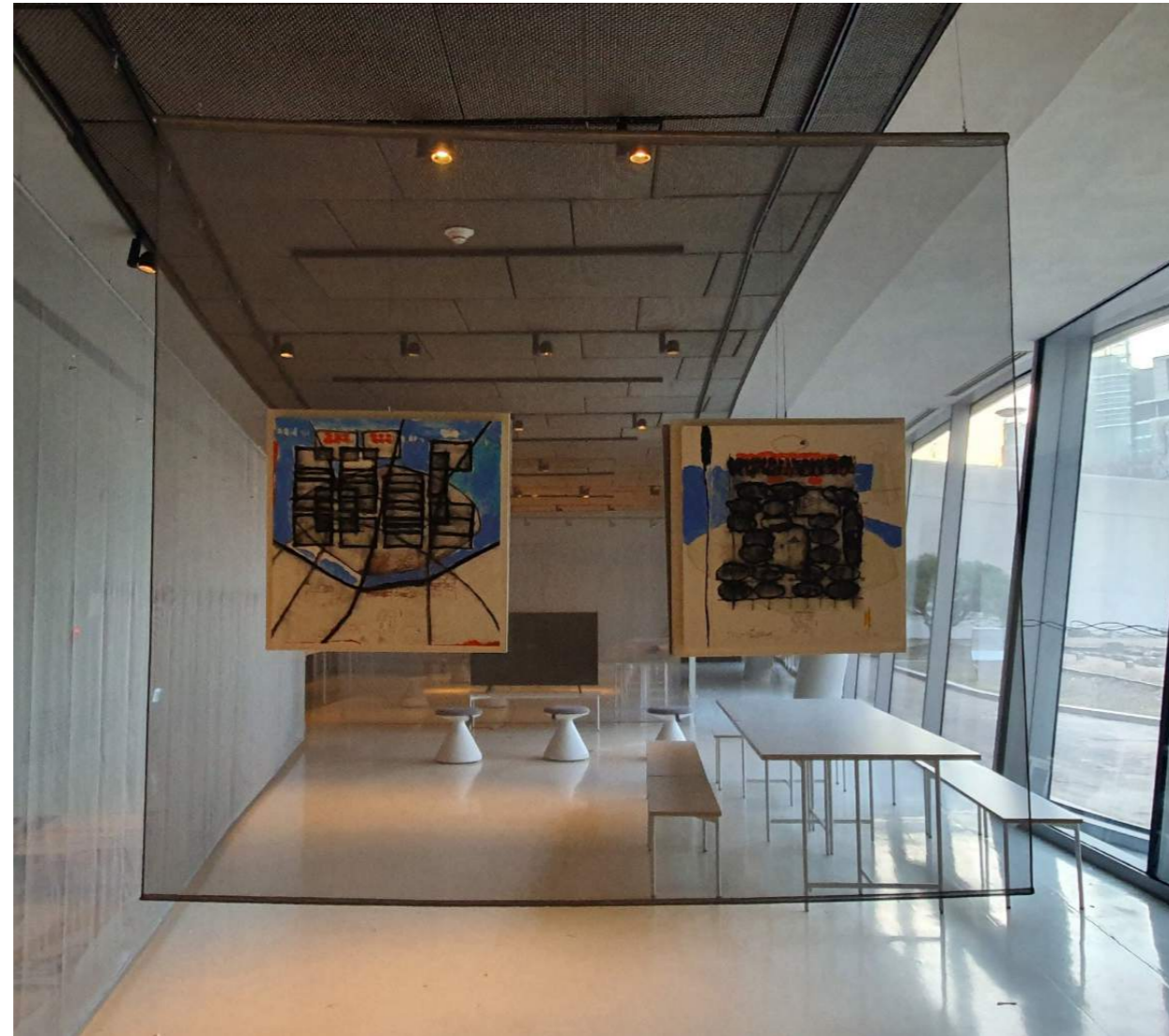
인지 지도는 사람이 환경 속에서 경험을 통해 파악한 정보와 대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지도다. 개인의 환경에 대한 인지적 과정은 개인에게 기억된 역사이며, 인지 지도는 이를 자유롭게 묘사한 공간적, 지리적 기호체계이다. 본 프로젝트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거주민들이 직접 그린 인지 지도를 통해 그들에게 남겨진 공간적 기억을 개별적이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본다.

김형진

김형진은 물리적 환경이 인간의 행태와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커뮤니티 공간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도시설계 실무를 익힌 후 텍사스A&M 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미국 캔자스주립대학교 조경 및 지역/커뮤니티계획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시장의 패브릭은
크바드라트 코리아가 지원했습니다.



kvadrat



DESKER®
사무가구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그대로, 데스크로!

—
1명이 일하든 100명이 일하든
집중이 필요한든 소통이 필요한든
모든 오피스는 똑같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에
사무가구도 데스크!

WWW.DESKER.CO.KR



이 전시는 시작과 성장을 위한
가능성의 가구 브랜드 DESKER와 함께합니다.

오프팅과 토크 진행은
 프루젤코리아에서 지원합니다



FRUZEL 프루젤

일상화된 건축의 관찰과 기록 Visualizing the invisible

DDP
 갤러리문

2023.1.27
 - 3.31

Opening
 2023. 1. 27. 금. 7pm

Talk #1 건축 이후의 건축
 2023. 2. 11. 토. 2pm

Talk #2 건축과 리빙 아이템
 2023. 3. 11. 토. 2pm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디자인재단

주최 서울디자인재단 새건축사협의회
 주관 새건축사협의회
 협찬 한국연구재단 데스크 크바드라트코리아 프루젤코리아